

		<h1>보 도 자 료</h1>		
		<b>배포 일시</b> 2018. 12. 3.(월) 총 3매(본문 2, 참고 1)		
<b>담당 부서</b>	해양개발과	<b>담당자</b>	•과장 오행록, 팀장 신선호, 사무관 이경환 •☎ (044) 200-5240, 6181, 6182, 6184	
	극지연구소 경제협력부	<b>담당자</b>	•단장 서원상, 부장 신형철, 팀장 이지영, 행정원 강민구 •☎ (032) 770-8440, 8430, 8630, 8631	
<b>보 도 일 시</b>		2018년 12월 4일(화) <b>석간</b>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4.(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열려

국내·외 극지연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극지활동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도전 과제와 인프라 확충 등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극지연구소(소장 윤호일)는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을 맞아 4일과 5일 이틀간 ‘극지과학의 도전 과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열린 ‘남극포럼\*’에 이어 개최되는 극지행사로, 국내·외 극지연구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극지연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서 큰 의미가 있다.

\* 탐험가 제임스 후퍼, 미생 윤태호 작가 등의 강연을 통해 국민들에게 남극의 색다른 모습과 이야기들을 전달(5. 31.(목),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이번 세미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영국, 독일, 중국, 일본의 국내·외 극지연구 전문가와 해빙연구선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극지연구 방향과 미래 전망, 극지 인프라 활용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세미나 첫 날에는 前극지연구소장인 김예동 박사의 ‘대한민국 극지 연구 30년과 미래 전망’이라는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해외 전문가들의 극지연구 방향 및 쇄빙선 등 연구 인프라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 주요 발표자 : (호주 남극국 부장) Rob Bryson, (일본 극지연구소 부센터장) Gen Hashida, (영국 자연환경연구회 수석연구원) Raymond Leakey,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연구소 교수) Heinrich Miller, (중국극지연구소 소장) WANG Jianzhong, (남극 프로그램국가운영자위원회 사무국장) Michelle Rogan-Finnemore

둘째 날에는 극지연구소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단장인 서원상 박사가 ‘대한민국 제2쇄빙연구선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주요 선도국가의 쇄빙연구선 도입 추세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패널 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주요 선도국가들의 극지연구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 간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미래 극지연구를 이끌어 갈 핵심 인프라인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연구 분야를 확인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목 적

- 남극 세종과학기지 준공 30년을 맞아 우리나라 극지연구의 성과를 알리고, 앞으로의 도전과제와 인프라 확충 등 발전방향 논의

주제 : 극지과학의 도전 과제와 대한민국의 미래

일시 및 장소

- (1일차) '18. 12. 4(화), 14:00~17:00 / 서울 코리아나 호텔
- (2일차) '18. 12. 5(수), 14:00~17:00 /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

주최 / 주관 : 해양수산부 / 극지연구소

주요 내용

- (1일차) 개회사 및 환영사, 기조 및 세션발표, 부대행사(사진전) 등
- (2일차) 세션발표, 패널 토의 및 종합 토론

참석자 : 국내·외 극지연구자 및 쇄빙선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

< 초청 대상 >

구 분	계	초청 대상	비 고
해외 전문가	6명	· 호주(AAD), 영국(NERC), 독일(AWI), 중국(PRIC),일본(NIPR), COMNAP 등 연구자	
국내전문가	90여명	· 주요 연구기관, 기후·해양·지질·생물·조선 등 학회, 교수 등	

## 붙임 2

## 주요 참석자 및 발표자

구분	사진	성명	소속	직위	약 력
환영사		윤호일	극지연구소	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한국극지기술연구회 부회장</li> <li>前 국제북극과학위원회 한국 부대표</li> <li>17차 남극 월동대장</li> </ul>
1일차 기조연사		김예동	한국 극지연구 위원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극지연구위원회(KONPOR) 위원장</li> <li>한-뉴질랜드 남극 협력센터장</li> <li>前 극지연구소장</li> </ul>
1일차 발표 및 2일차 패널		롭 브라이슨 (Rob Bryson)	호주 남극국 (AAD)	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주 남극국 인프라현대화 부장</li> <li>前 남극 연구향해 수석(책임자)</li> </ul>
1일차 발표 및 2일차 패널		겐 하시다 (Gen Hashida)	일본 극지연구소 (NIPR)	부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쇼와기지 월동대장 및 월동대 참여</li> <li>남북극해 무기탄소 연구 등 생지화학 전문가</li> </ul>
1일차 발표 및 2일차 패널		레이몬드 리키 (Raymond Leakey)	영국 자연환경 연구회 (NERC)	수석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수석연구원</li> <li>前 남·북극 향해 수석연구원</li> </ul>
1일차 발표 및 2일차 패널		하인리히 밀러 (Heinrich Miller)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 (AWI)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WI 헬름홀츠 빙하학 교수</li> <li>독일 신규 쇄빙연구선 과학기술이사회 의장</li> <li>빙상기후복원연구, 빙동역학, 빙하학 전문가</li> </ul>
1일차 발표 및 2일차 패널		왕지안중 (WANG Jianzhong)	중국 극지연구소 (PRIC)	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쇄빙연구선 쉘룽(Xuelong) 선장</li> <li>신규 쇄빙연구선 쉘룽2(Xuelong2) 건조사업 부감독</li> <li>중국 극지향해 및 장비 전문가 위원회 사무국장</li> </ul>
1일차 발표 및 2일차 패널		미셸 로건- 피네모어 (Michelle Rogan-Fin more)	남극 프로그램 국가운영자 위원회 (COMNAP)	사무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MNAP 사무국장</li> <li>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ATCM) 수석대표</li> <li>남극 월동 2회 등 다수의 극지연구 경험</li> </ul>
2일차 발표		서원상	극지연구소	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단장</li> <li>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ATCM) 한국대표단</li> </ul>